

Ethylene, 호남 · SK 과잉으로 폭락!

FOB Korea 420-440달러로 45달러 하락 ... 일본도 PE 재고로 고민

Ethylene 가격은 9월26일 FOB Korea 톤당 420-440달러로 45달러 폭락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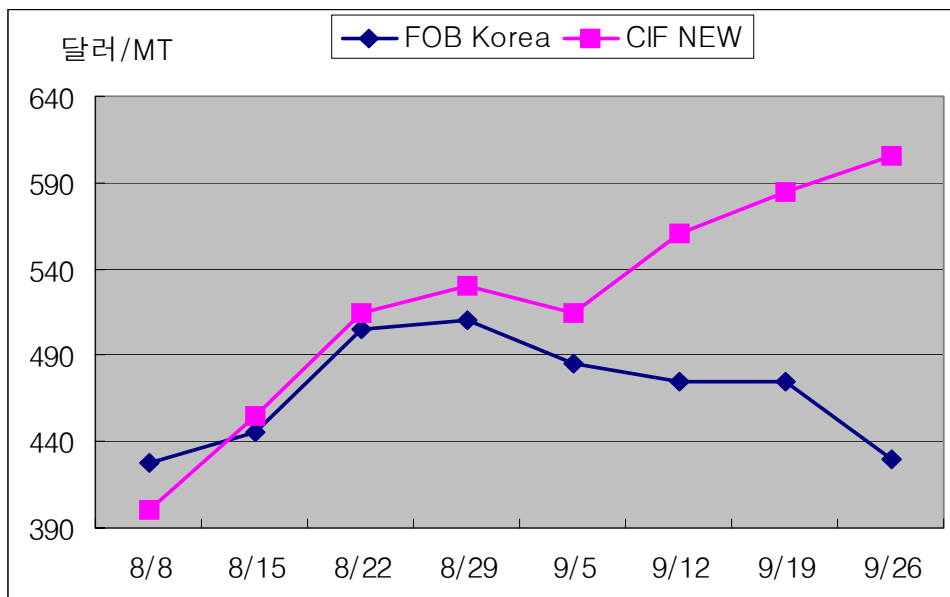
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일본 및 타이완의 PE 재고가 쌓이면서 PE 플랜트 가동률 조정에 나서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한국은 톤당 45달러, 타이완은 30달러 하락했다.

동남아에서도 유럽수출이 막히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 하락세를 보였다.

호남석유화학은 10월 상순에 에틸렌 2000-2300톤, SK는 10월 하순에 2300톤을 상업판매해야 하는데, 호남 및 SK는 FOB Korea 톤당 440-450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무역상들은 400-420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한국기업들은 타이완에 대해서는 10월 하순 및 11월 상순 공급가격으로 CFR Taiwan 480달러를 요구했으나 구매기업들은 450달러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.

Ethylene 가격추이



아시아의 LDPE 및 HDPE 가격은 9월24일 CFR China/Hong Kong 톤당 610-615달러로 급락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, 나프타 가격은 9월26일 C&F Japan 톤당 267달러로 약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다.

한편,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9월26일 CIF NWE 톤당 600-610달러로 20달러 상승했고, 3/4분기 계약가격은 톤당 445유로를 형성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9/29>